

광주FC '무한질주' ... 1부 승격 보인다

K리그2 20경기 단독선두
14승4무2패 승점 46점
최소실점·연속무패 기록

광주FC가 K리그2 1위 자리를 굳히며 2022시즌 반환점을 돌았다. 광주는 지난 2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2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1위 광주와 2위 대전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승점 9점 차 간격을 유지했다. 광주는 승점 46점(14승4무2패), 대전은 승점 37점(10승7무3패)이다.

총 40경기중 20경기를 마친 광주는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1부리그 승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K리그1 최하위인 12위(10승7무21패)를 기록하며 2부리그로 강등된 광주는 사령탑을 교체하고 선수단을 정비하며



지난 2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2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 광주FC 김중우(오른쪽)가 전반 34분 선제골을 넣은 뒤 이정호 감독에게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새 시즌을 맞았다.

이정호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지난 1라운드 K리그2 김포와의 경기에서는 1-2로 패

배하는 쓴맛을 봤다. 2라운드 대전전에서는 헤이스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완승을 거둬 동시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선수 교체

◇2022 K리그2 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광주	46	14	4	2	35	16	19
2	대전	37	10	7	3	34	24	10
3	부천	31	9	4	6	21	17	4
4	안양	28	7	7	5	20	23	-3
5	충남아산	28	7	7	5	18	16	2
6	경남	24	6	6	7	35	33	2
7	서울E	22	4	10	5	17	18	-1
8	김포	20	5	5	10	26	39	-13
9	전남	20	4	8	8	22	25	-3
10	부산	15	3	6	11	21	30	-9
11	안산	14	2	8	9	18	26	-8

투입과 이정호 감독만의 '끈질긴 축구'를 선보인 전술 변화 방식은 성공적이었다. 이후 안양, 안산을 차례로 격파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어느덧 시즌 중반을 치른 광주는 20경기를 치르며 14승 4무 2패 승점 46점을 쌓아 승승장구 중이다. 2위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광주는 지난 3월 26일 충남아산전 2-1 승리부터 15경기 무패(11승 4무)를 내달렸다. 특히 홈에서는 20라운드 안양전 4-0 승리 이후 홈 10연승과

함께 K리그2 역대 홈 최다 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또한 18경기 만에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리그 최다득점 1위(35득점)에 올라있는 광주는 마이키·허울·헤이스 등 공격진의 맹활약은 물론 두현석·이옴·이상기 등 양측면 수비수들의 과감한 공격 가담이 갈수록 기세를 올리고 있다.

박한빈·이순민·정호연 등 탄탄한 중원 라인과 함께 안영규·김재봉·김현훈의 든든한 스리백, 김경민의 슈퍼세이프까지 더해지며 리그 최소실점 공동1위(16실점·충남아산)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한 김중우의 활약도 주목된다. 김중우는 20라운드 안양전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이후 전남, 대전을 상대로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무패행진을 이끌었다.

여기에 U-23 대표팀에서 복귀한 엄지성과 함께 새 외국인 자원인 산드로를 품어 안았다. 광주는 공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멀티플레이어를 추구하는 이정호 감독과 함께 젊고 경쟁력 있는 선수들의 저력으로 시즌 절반을 치른 광주의 2022년 승격 도전은 계속된다. /조혜원 기자

김국영 10초17... 오늘 결승서 10초05 도전

육상선수권 100m 준결승

한국 간판 스프린터 광주시청 김국영(31)이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7로 전체 1위에 올랐다.

그의 이번 대회 결선 목표는 올해 7월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기준 기록인 '10초05'다.

김국영은 22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남자 100m 준결승에서 10초17로 1조 1위가

자,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전체 2위는 10초24의 김태호(파주시청)였다.

김국영은 23일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선에 출전한다.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기준 기록 인정 기한은 오는 26일이다.

김국영에게는 23일 전국육상선수권 결선 기준 기록 10초05를 넘어설 마지막 기회다.

10초07의 한국 기록을 보유한 김국영은

지난 2일 경상북도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0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대학·일반부 100m 결선에서 10초14로 우승했다. 당시 김국영은 감기·몸살 등으로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전국육상선수권대회(10초12)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만들어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 가능성을 키웠다.

애초 김국영은 "전국육상선수권에서 100%의 몸 상태로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선 10초28, 준결승 10초17로 예열을 마친 김국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23일 출발선에 선다. /최진화 기자



광양시청이 지난 13~19일 전주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뒀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양시청, 대한불링협회장배 종합우승

최복음 마스터즈 1위·개인 2위
곡성군청, 여일 5인조 우승

광양시청이 지난 13~19일 전주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시청은 남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 최복음, 백중윤, 백승민, 박재훈, 가수형이 출전, 합계 4,447점 평균 222.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최복음은 마스터즈에서 10경기 합계 2,492점, 평균 249.2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백승민도 합계 2,291점, 평균 229.1점을 기록하며 최복음, 김태규(성남시청)에 이어 마스터즈 3위를 차지했다.

불링 마스터즈는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경기를 총합산, 이중 상위 10명에게

상으로 또 다시 10개임을 진행해 총점으로 1~3위를 겨루는 종목이다.

광양시청 최복음과 백승민은 개인종합에서도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 출전한 곡성군청 불링팀(이영숙, 하유림, 김문정, 장미나, 김현미, 김예슬)은 합계 4,262점, 평균 213.1점으로 우승했다.

이영숙은 마스터즈에서 장하은(용인시청), 최애림(황성군청)에 이어 합계 2,292점, 평균 229.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춘수 광양시청 불링팀 감독은 "광양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강대연 곡성군청 불링팀 감독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세리나 1년 만의 복귀전 미국의 세리나 윌리엄스가 2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의 이스트본에서 끝난 WTA 투어 로디세이 인터내셔널 복식 1회전에서 공을 리턴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온스 자베르(튀니지)와 한 조로 출전, 시라 소리베스 토르모(스페인)-마리 보즈코바(체코) 조를 2-1로 물리쳤다. 윌리엄스가 공식 대회에 나온 것은 지난해 워imbledon 이후 1년 만이다. /AFP=연합뉴스

전남체육회 김민경 짝핀 100m 한국신

제주해녀배 핀수영 42초28

전남체육회 김민경(19)이 핀수영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김민경은 지난 21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대회 남자일반부 짝핀 100m에서 42.28초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민경은 한국신기록을 0.07초 경신했고 개인 최고기록인 42초38을 무려 0.1초나 앞당겼다.

중전 짝핀 100m 한국신기록은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경현(해양경비안전본부)이 세웠던 42초35다.

김민경은 경기전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계영 400m에서 금메달과 짝핀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핀수영의 '셋별'로 떠올랐다.



전남체육회 김민경이 지난 21일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핀수영대회 남자일반부 짝핀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전남체육회 권혁민(32)은 남자일반부 표면 400m에서 3분9초로 2위에 올랐다.

김민경과 권혁민은 다음달 18~23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